

삼쌍둥이 수술 하나 살릴까, 둘 다 죽게 둘까

불자 세상보기

8월8일 영국에서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삼쌍둥이 '조디'와 '메리'의 분리수술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조디'는 정상적인 폐와 심장을 가지고 있으나 '메리'는 폐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조디의 핵심 신체기관에 의지해 살고 있다. 분리수술을 하면 조디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나, 분리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둘 다 죽게 된다.

영국 법원은 한 아이라도 살리자는 뜻에서 수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가톨릭 교회, 일부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우리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생각할 수

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며 분리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허락하는 수준을 넘어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분만 중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병사의 희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 이런 죽음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도덕적 요소가 있다.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유대인 소피는 2명의

'조디'와 '메리'의 선택

하나의 삶속에 들어간 또 한 생명 두 사람의 삶이다

자식 가운데 한 명은 살릴 수 있다는 독일군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결국 한 명을 택하게 되고 남은 평생을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한 몸품이 쌍둥이 여아의 경우는 다르다.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면 둘 다 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한

아이라도 살리는 것이 차선이다. 아니 차선의 차원을 넘어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 두 생명 모두가 사는 거룩한 선택이다.

생명존중을 으뜸으로 여기는 불교에서는 '목숨있는 것을 재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생명존중에 대한 최선이 가능한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둘 다 아니라는 마땅히 하나라도 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하나의 삶속에 또 다른 한 생명이 온전히 깃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닌 두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다.

〈백유경〉에 독 속에서 머리가 빠지지 않는 낙타 이야기가 있다. 주인은 이 둘을 모두 구하기 위해 독을 깨뜨리고 낙타의 목을 잘랐다. 깨진 독은 불이던 되고 자른 낙타의 목은 이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것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둘 다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낙타의 목을 자를 것이고, 낙타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독을 깨뜨릴 것이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편적 '선(善)'이 낙타를 살리는 쪽이고 보면 당연히 독을 고집할 수는 없다.

물론 '보편적 선'이 누구에게나 절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조디와 메리의 생명이 부모의 것이 아닌 두 아이 자신의 것이다. 부모의 선택이라 해도 사회적 윤리와 규범, 그리고 공리(公利)적 측면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술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구현가능한 '보편적 선'의 추구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이렇게 들었다

책임의식

내가 할일 어찌 태만하리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실차녀간자소설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늘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자신의 일에 태만하며 편하게 살지말라.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열반경)

수행자가 증상을 돌볼때 있어서는 연민하는 마음,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을 내어 천지가 만물을 길러주듯 그렇게 증상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하여 한낱 개마라 할지라도 공포에서 건져 주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의무이다. (열반경)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느냐. 밤낮으로 게으름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 그를 일러 성자라 한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살고 있을 때 생활은 생기가 넘치고 맑아진다. (중대전연일야원자경)

통치자는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도 백성이 태평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통치는 불완전한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변명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력과 위엄으로 백성을 잘 보호해 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통치자만 백성이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벽암록)

스님께서 평생동안 고상하고 절도있게 수행한 일은 형용하기 어렵거나 남보다 현혹하는 반도시 남보다 먼저 나셨다. 일 말은 이가 민망하게 여겨올래 연장을 숨기고 쉬기를 청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내가 할 일 어찌 남들에게 떠넘겨 주고 그렇게 하였는가."

스님께서는 두루 연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공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백장록)

열린마당

동국대 불교대 학생의 전과(轉科) 문제에 대해 '허용·금지' 논쟁이 뜨겁다. 지난 6월 송석구 총장, 정용길 기획인사처장 등 동국대 주요 보직 교수들이 참여·발족한 불교대발전추진위원회의 발전 방안 중 '전과 허

허용 발전소위 입장

"교수충원·입학자격 조정 등 종립대 위상강화 모색"

학생의 전과는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 자유롭게 들어왔으니 또 자유롭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불교대 발전을 위해서는 '전과'에 엄매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개혁과 발전의 주체는 불교대의 몫이고, 방안 역시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교 행정은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교수 충원' '입학 자격 및 응시 방법 조정' '대학원과의 연계' 등 불교대 발전을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 1명당 11.2명의 학생 정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불교대의 경우 교수 1명이 3.6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법정 교원 수와 비교해 170%를 웃도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행정은, 불교대가 동국대를 대표하는 단과대임을 감안해 3~4명의 교수를 더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불교학이라는 것이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 불교대 특색전철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추천 입학 학사 수를 2001년 1학기부터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학사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과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급변하는 교육 행정을 유연하지 않은 탓이다. 전과를 금지하면 당장 입학 정원 69명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정원을 채우다 해도 성적 우수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추천 입학 역시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불교대는 학생의 수의 감소보다는 현재 불교대 소속 학생들을 유능하고 심신 겸은 불자로 키우는 데 고심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생의 轉科

용'에 대해 불교대 소속 교수 대부분은 조계종립인 동국대의 정체성을 흐드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위원회와 불교대 교수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금지 불교대교수 입장

"학생·수강과목 둘다 부족 불교전공 졸업생 계속 줄어"

전과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불교대 학생 정원마저 줄인다면, 불교대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학교 당국은 불교대 소속 학과 현행 이수 학점인 70여 학점을 60여 학점으로 낮출 복안을 가지고 있어, 수강 과목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학이 비인기 학문으로 추락하고 있는 데, 불교학은 부족한 '인적 자원'과 빈약한 '수강 과목'이라는 두 가지 악재와도 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대 교수들은 전과 금지와 정원 충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의 전과는 교육법에 맞지 않음에 하고, 정원 확충은 타 단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뿐 불교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유연하지 않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BK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 '불교 특성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리어 '불교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대학원 중심체제를 위해 단과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학 없는 대학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정원 문제 역시 120여 명에 불과한 법대의 정원에 비추어보면, '형평성'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불교계는 매년 젊고 유능한 청년불자들의 수혈을 기다리고 있지만, 불교대는 매년 69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모든 불자들의 불심을 지켜주고 또 일반인들의 발심을 돕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다. 이에 따라 불교대 교수들은 불교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전과 금지 ▲학생 정원 확충 ▲전공필수 부활 등의 학사 행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기고

금메달 지상주의 우려하고 경계

땀 흘린 모두에 박수



이우상 소설가

지구촌의 잔치인 올림픽이 끝났다. 청춘의 땀과 열정을 쏟아 금메달을 딴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기까지 그들의 땀안에는 저마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을 것이다. 오로지 각고의 절제와 인내만을 강요당하며, 분부 노력만이 존재하는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슬픈 괴로움의 역정은 잊혀지고 승리한 자의 기쁨, 이긴 자의 희열과 보상이 대거 쏟아진다. 그들이 치루어왔을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을 어찌 가뭇다할 수 있겠나.

그러나 찬란한 금메달의 광채 뒤에는 덜 빛나는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유독 선 금메달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거머쥐고 기쁘고 기쁘고 서게된 뒤 무수한 무명 용사들이 있다.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닌 선수라도 혼자 달려서는 신기록을 수립할 수 없다. 함께 달려가는 동반자가 있을 때 신기록이 나온다. 이들이 가려진 동반자들의 노력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진정한 승리자일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오만한 말이 있었다. 모든 노력은 금메달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금메달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육된 소수가 얻는 금메달보다는 건강한 다수의 기량과 지혜가 향상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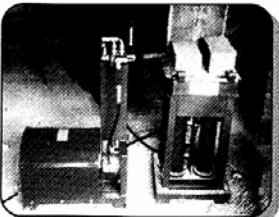
국가의 선진화란 건강한 다수가 함께 걸으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건강한 청년들을 금메달 한탕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금메달 획득 숫자로 종합 순위를 매기는 것은 우리나라에 만 있는 이상한 통계학이라고 한다. 최선을 다한 이에게 보내는 격려와 박수가 금메달에게만 보내는 편협한 갈채보다 가치가 있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장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황토마을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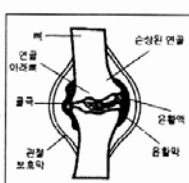
- ① 황토 주먹 도구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 두 무릎이 추시고 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콧물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 관절염), 엄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방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폴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체중감량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가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폴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이 회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폴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 거두어보았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출범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시여태원 거봉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나네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스테로이드 더 쓰더라니까"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희귀하고 값어치 높고 귀한 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식검정콩은 만든 방법은 스님의 비법으로 만든 약중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약중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0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0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레이프'이라 부르기도 하는 세리데를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스님은 말한다.

"선식검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변비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체의 지능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열압, 지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